

## 雪橋 安錫傲의 시에 대한 인식과 시세계 연구

김 근 태\*

<目次>

- |                  |                       |
|------------------|-----------------------|
| I. 서론            | III. 삼교 시에 보이는 특징적 면모 |
| II. 師承과 시에 대한 인식 | IV. 결론                |

<국문 초록>

본고는 삼교 안석경의 시에 대한 인식과 시세계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삼교는 특별한 스승 없이 부친 및 부친과 친분이 있던 名士들을 통해 학문을 익혔다. 또한 당시 시인으로 이름을 날렸던 김창흡과 이병연을 私淑하여 그들의 시의식과 작법을 수용하였다. 삼교는 학문적 역량의 배양과 수양을 기본 토대로 하되, 시인의 순수한 감정을 바탕으로 시적 대상에 대해 逼真하게 묘사하는 것이 참된 시라고 생각하였다.

삼교의 시에는 속세를 초탈하여 자연에 은거하며 지내는 즐거움 및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읊은 시가 다수를 차지하기에 超詣의 미감이 강하다. 또한 송시열을 삶의 좌표로 삼아 北伐論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위축된 조선의 氣概가 다시 펼쳐지기를 바라는 염원을 시로 표출하였다. 작법적인 측면에서는 가식 없는 경물의 묘사를 중시하였는데, 경물의 사실적인 묘사와 더불어 경물이 담고 있는 정신적인 측면에 대한 묘사에도 치중하였다.

【주제어】 安錫傲, 金昌翁, 李秉淵, 超詣(an uncommon and profound style), 宋時烈, 逼真(the Verisimilitude), 北伐論(the Plan for a Northern Expedition)

\* 강원대학교 강사 / neoktkim@naver.com

## I. 서론

1981년 이우성 교수가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된 『삼교문집』과 『삼교별집』을 국내에 소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雪橋 安錫儻(1718~1774)은 『삼교만록』이라는 야담집의 작가로서 처음 연구되기 시작하였다.<sup>1)</sup> 그 후로 학계에서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2000년 이후에 접어들면서 산문 작품 및 『삼교예학록』 등 비평자료가 주목을 받으면서 여러 연구물이 학계에 보고되었다.<sup>2)</sup>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물은 그의 생애와 의식세계, 산문 작법 및 비평에 관한 연구에 치우쳐,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밝힌 연구물은 현재까지 전무한 형편이다.<sup>3)</sup>

삼교는 동시대인들의 평가나 스스로의 시에 대한 자부심, 시선집 편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8세기 조선의 한시 시단에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삼교가 후세에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그가 한평생 포의로 지냈고, 사후 130년이 지나서야 문집이 간행되었는데 그나마도 완벽하지는 않았다는 외부적인 요인을 먼저 거론할 수 있으며, 문집이 출판되어 소개된 이후에도 시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지 못한 것은 18세기에 활약한 수많은 시인들 사이에서 그만의 독특한 면모를 밝히는 것이 용이치 않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삼교의 시세계에 대한 연구가 처음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의

- 
- 1) 이명학, 「삼교만록 연구」, 성균관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2) 정우봉, 윤지훈, 강혜규, 권진욱 등 몇 명의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가 있는데, 지면상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는다.
  - 3) 필자가 「삼교 안석경의 생애와 시」라는 제목으로 문헌과 해석에 발표한 글(『문헌과 해석』 28호, 문헌과해석사, 2004.)이 있지만, 안석경의 생애를 다루면서 몇 편의 시를 인용한 것이기에 그의 시세계를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다. 본고는 위의 글을 바탕으로 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시세계에 영향을 끼친 인물과 시의 본질 및 시를 짓는 기법에 있어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었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그의 한시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적인 면모를 고찰하기로 한다.

## II. 師承과 시에 대한 인식

현전하는 삼교의 한시는 대략 500여수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규장각본 『삼교집』에 수록된 304수와 금강산 기행문인 「東行記」, 「東遊記」에 수록된 20여 수, 「靄橋漫詠」 79수 외에도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된 『靄橋詩抄』에 칠언율시 143수와 오언율시 82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칠언율시 27수와 오언율시 71수는 규장각본에는 빠져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sup>4)</sup>

먼저 삼교가 당시에 시인으로 명성을 떨쳤다는 사실을 동시대 인물의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안석경은 시를 잘 지었다. ... 일찍이 말하기를, “봉록 김이곤은 시가 바른 운을 잃지 않아 蜀과 같고, 승지 민백순은 시가 부러하고 넉넉하여 吳와 같으며, 처사 김복현은 시가 웅건하고 분수에 넘쳐 魏와 같다.”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선생은 어떠합니까?” 하니, 안석경이 웃으며 말하기를, “나는 곤륜산 최고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 삼국의 땅을 내려 보는 것 같다.”라고 하였다. 그의 자부함이 이와 같았다.<sup>5)</sup>

4) 『靄橋詩抄』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이미지 검색이 가능하다. 그런데 前間恭作이 편찬한 『古鮮冊譜』에 칠언율시 72수와 오언율시 42시 수를 모아둔 1책의 『靄橋詩集』이 있다는 기록(“安錫傲の作 七律七十二首 五律四十二首를 集錄せり”(前間恭作編, 『靄橋詩集』, 『古鮮冊譜』 三冊, p.1445.)이 보이는 데, 이 책을 말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율시만을 모았다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분량이 두 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5) 尹行恁, 『方是閒輯』, 「安錫傲」, “安錫傲長於詩 … 嘗言 金鳳麓履坤詩 不失正韻如蜀 閔承旨百順詩 富瞻如吳 金處士復顯詩 雄健僭竊如魏 人有問曰 先生如何 安笑曰 吾登崑崙山絕頂 俯瞰三國墟 其自負如此”

안석경은 자가某고 벼슬은 참봉, 호는 삼교이다. 승지 후의 손자요, 참판 중관의 아들이다. 원주에 살면서 문명을 날렸다. 기발한 시구에, “버드나무에 가는 바람 봄술은 방울지고, 살구꽃에 고운 달 새벽 강이 높다.”, 또 “땅 가득한 먼지를 높이 나는 새가 살피고, 하늘 가득한 바람과 이슬을 들쭉은 안다.”가 있다. 또 사람의 앞날을 잘 미루어 짐작했다.<sup>6)</sup>

앞에 인용한 글은 삼교가 각종 시풍을 아우르는 재능을 지녔고 시에 대한 자부심이 컸음을 보여주는 일화이며, 뒤에 인용한 글에서는 당시에 명구로 이름을 날렸던 삼교의 시구를 소개하고 있다. 인용한 글에서도 나타나듯이 삼교의 시는 어떤 특정한 시풍에 얽매이지 않으며, 속세를 초월한 맑은 느낌을 선명한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 그의 장치가 된다.

삼교는 시를 배움에 있어 특정한 인물에게 사사한 기록이 없다. 어려서 부친인 安重觀(1683~1752)에게 학문을 배웠고, 金焮을 비롯한 여러 은일처사들과의 토론을 통해 그 깊이를 더하였지만, 대부분은 홀로 공부하여 깨우치는 獨學自得的인 경향이 강하였다.

일찍이 네 아버지가 삼연에게 대하는 것도 또한 그러하였다. 삼연은 네 아버지에게 학문을 전수하고자 하였으나 네 아버지가 마땅하지 않다고 여겨, 다만 때때로 종유하며 강론하였을 뿐이니, 강론이 어찌 이로운 바가 없으랴마는 돌아보니 머리를 굽히고 뜻을 굽혀 그의 깊은 속을 다 얻고 엄격한 가르침을 받아 정수에 나아가는 것만 같지 못하다. … 네 아버지가 비록 가학의 전함이 있으나 실은 홀로 깊은 데까지 들어가 괴롭게 스스로 터득하였기에 깨달아 아는 것은 삼연을 멀리 뛰어넘지만 문장은 멀리 뛰어넘지 못하였고, 시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지금 너는 너의 아버지에게 학문을 배워 근심할만한 것은 없다. 그러나 배우는 바를 근거로 하여 스스로 힘을 다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구해야 함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sup>7)</sup>

6) 李奎象, 『并世才彥錄』, 「文苑錄」, “安錫徹 字某 官參奉 號雪橋 承旨屋孫 參判重觀子 居元州 擅文名 有驚句曰 楊柳微風春酒滴 杏花纖月曉江高 又曰 滿地塵埃高鳥見 渾天風露野花知 又善推人前程”

7) 安錫徹, 『雪橋漫錄』 卷1, 「師弟」, “曾看汝翁之於三淵 亦然 三淵欲傳其學汝翁 汝翁不宜 但時從遊而講論 講論豈無所益 顧不如屈首遜志而盡得其蘊 受其鉗

위의 인용문은 김공이 삼교에게 부친의 선례를 거론하며 학문하는 방법을 일깨워주는 내용이다. 부친인 안중관이 삼연의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터득하려 하였기에 문장과 시에 있어서는 삼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삼교도 부친의 이러한 학풍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아 세상 모든 것이 나의 스승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독학자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집에 빠지기 쉽다는 점이다. 삼교는 폭넓은 독서를 통하여 이것을 극복하였다. 그는 중국의 역사서와 제자백가류, 문학서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서적을 탐독하고 독자적인 자신의 견해를 세워 나갔다.<sup>8)</sup>

그러나 그에게도 정신적인 師表가 있었으니 경학과 처신에 있어서는 宋時烈이요, 시와 문장에 있어서는 金昌翁(1653~1722)과 李秉淵(1671~1751)을 들 수 있다. 부친인 안중관은 택당의 외증손으로 문한가의 피를 이어받았으며 김창흡의 문하에 출입하였고, 이병연과는 서울생활시 날마다 詩酒를 즐겼던 사이이다. 이러한 부친의 영향을 받아 그는 김창흡을 우리나라에서 才學을 겸비한 유일한 인물이라 추앙하였고,<sup>9)</sup> 이병연의 시문집 발간을 적극 주장하기도 하였다. 김창흡과는 시대 차이로 인해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하였기에 논외로 하고 동시대를 살았던 이병연에 대해 어떤 관점을 지니고 있었는지와 그의 어떠한 시풍을 배우고자 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鎡而進修精銳也 … 汝翁雖有家學之傳 而實則孤往深入 辛苦自得 故識悟獨遠 過三淵 而文不能遠過 詩則不及遠矣 今汝學於汝翁 無可憂者 然宜知據所受 而自竭精力 更要進前之方焉”

- 8) 成大中の『青城雜記』에는 삼교가 유교경전은 물론이거니와 천문서와 지리서, 병서와 불경에 이르기까지 많은 책을 읽어야 한다고 젊은이에게 충고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成大中, 『青城雜記』 卷4, 「大道」.)
- 9) 安錫傲, 『雪橋集』 卷1, 「夢百淵先生談詩記」, “自有朝鮮以來 詩家數十百 才學兩至者 殆先生一人耳”

岳下先生千古士	악하선생은 천고의 선비
師事三淵友先子	삼연을 사사하였고 선친과 벗이었다네.
文章霞月兩無窮	문장과 자연 둘 다 무궁하니
運用大東佳山水	우리의 아름다운 산수를 시로 표출하였네.
一笑微茫陋天下	비루한 천하 보잘 것 없다고 한번 웃으시고
愛看白雲無塵滓	티끌 없는 백운 보는 것을 즐겨 하셨지.
時容小子當隅坐	때때로 소자를 자리 옆에 앉게 허락하시어
幸得先生一顧視	선생께서 한번 돌아봐 주시는 행운을 얻기도 하였다네. <sup>10)</sup>

(中略)

鄭來僑가 지은 「奉贈槎川翁出宰陟州」라는 시의 첫부분에 “岳下先生 白頭 胡爲去作嶺東州”<sup>11)</sup>라는 구절이 있어 岳下先生은 이병연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 위의 시에서 삼교는 이병연이 삼연의 제자였고 부친과 벗이었다는 점을 밝히고, 천하를 보잘것없는 비루한 것이라 여기는 호쾌한 마음을 지녔으며, 전국을 유람하면서 우리나라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시로 읊었다는 점을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접 이병연을 뵈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실을 언급하였다.<sup>12)</sup>

體氣弘深備四時	타고난 기상 넓고도 깊어 사시를 갖추었고
神用健學橫三際	정신의 운용과 굳센 행실은 삼계를 아우르네.
人間萬事獨取詩	인간 만사 가운데 유독 시만을 취하고
大盖高軒看疣贅	크고 높은 수레 하찮게 보았네.
咀嚼雅騷兼漢魏	아소와 한위의 시를 되씹으며
涵唐染宋俄龍蛻	당시를 익히고 송시에 빠졌다가 모두 벗어던졌네.
百淵精鑑許千古	삼연의 정밀한 감식으로 천고를 허여하였으니
靑山綠水風雨霽	청산과 녹수에 비바람 곁히네. <sup>13)</sup>

10) 安錫徹, 『雪橋集』 卷1, 「入城過岳下先生故宅」의 앞부분.

11) 鄭來僑, 『浣巖集』 卷2, 「奉贈槎川翁出宰陟州」의 수련.

12) 『雪橋漫錄』에는 70살이 넘는 이병연이 불면증에 시달리자, 삼교가 근심겨 정을 버리고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 자연스럽게 잠이 올 것이라고 조언을 했다는 일화가 보이기도 한다.

위의 시에서도 이병연이 깊고 넓은 기상을 타고났다는 점과 속세의 영달을 달가워하지 않고 시 짓기를 즐겨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였다. 다음으로 그가 시경과 초사 및 한위 고시를 깊이 체득하였다는 점과 송시와 당시를 모두 아울러 익힌 후에 그러한 시풍에서 초월하였다는 점을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삼연의 인정을 받은 사실을 비바람이 걷힌 후 자연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삼교는 위의 시에서 이병연이 고시와 당시, 송시 등 모든 시체에 대한 학습을 거쳤고 결국에 가서는 모든 시체를 초월하여 어느 특정한 시체에 구애받지 않는 시풍을 지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조선의 한시사에서 송시와 당시의 대결구도는 삼연과 농암 및 그의 제자들이 활동하던 18세기에 이르러 그 의미를 잃게 되는데, 이들은 송시, 당시라고 하는 특정한 시풍에서 벗어나 참된 시[眞詩]를 쓰고자 하였던 사실과 부합되는 내용이다.

삼교가 이병연의 영향을 받아 어느 특정한 시체나 풍격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점은 아래의 글에서도 확인된다.

우리나라 시를 뽑는 일에 대해 알려주신 점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널리 시를 채록하는데 필요한 한 마디 말이 있어야 할 것이기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온유돈후는 진실로 시인의 올바른 법이지만 시경에서 그것을 찾아보면 반드시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冤置의 適健, 擊鼓의 豪蕩, 簡兮의 奇逸, 鶉奔과 相鼠의 嚴苦, 大東의 恢詭, 江漢과 常武의 壯浪함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람의 시를 뽑을 때는 또한 하나의 법으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은 志趣를 보고, 혹은 風槩를 보고, 혹은 情致를 보고 그것을 취해야 합니다. 혹은 따뜻하고 혹은 시원하며, 혹은 기이하고, 혹은 올바르더라도 단지 그중에서 취할 만한 것을 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는 뜻을 말하고, 노래는 말을 길게 합니다. 소리는 길게 끄는데 기대고 음률은 소리와 조화되니, 이것으로 보건대 성물은 말단이요, 뜻보다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글을 짓는 사람에게

13) 安錫徹, 『雪橋集』卷1, 「上岳下先生」.

있어서는 마음이 뜻이 되니 어찌 道心이 발한 바가 아닌데 그것을 시라고 말하겠습니까? 고인이 시가 理와 관련되지 않으면 이내 道를 어지럽힌다고 하였습니다. 마땅히 理를 따랐는지 아니면 어겼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또한 시대마다 숭상하는 바가 각각 있었으니, 魏晉의 綺麗, 齊梁의 輕艷, 晚唐의 纖巧, 宋人의 典實, 元明의 浮華가 이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숭상하는 바가 어떠한지 알지 못하겠지만 지난번에 사친 어른이 시로서 계문 이철용[李鎋]의 평을 받은 것을 보니 대개 그들이 취하는 바는 당시에 있습니다. 그들의 습속이 또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배들이 숭상한 바는 송시에 가까운데 지금 만약 당시에 가까운 것만을 오로지 취한다면 반드시 그 장치를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장부는 끝내 습속에 아부함을 구하여 향하거나 피하는 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선배들의 시를 뽑는 일은 마땅히 장치가 있는 것을 각각 취해야지 어느 한 가지 격식에 얽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춘추의 의리는 지금 세상에서 꺼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철용의 시에 “책을 보다가 갑자기 천추의 눈물 흘리고, 물가에 가니 만 리의 근심이 더욱 늘어나네.”라는 구절이 있고, 삼은록에 “천하의 대사는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중국의 선비들에게는 이와 같은 말들이 많을 것이고 그들의 습속으로도 또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선배들의 시 가운데 춘추의 은미한 말이 있는 것은 심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또한 뽑아서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엄성과 육비 등은 강남의 뜻있는 선비이니 지금 단지 우리나라 시인들이 자연을 읊은 작품들만 그에게 보여준다면 어찌 비웃음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문장의 오묘함은 말보다 오묘함이 있으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표출한다고 해도 오직 아는 자만이 그 은미한 뜻을 알 뿐입니다. 반드시 사람들 모두 그것을 알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인들 시집 가운데 또한 하교하신 서신에 따라 백여 수를 뽑아 올리는 것은 여름 사이에 가능할 것입니다.<sup>14)</sup>

14) 安錫徹, 『雪橋集』 병집 상, 「答閔順之」, “... 示選東詩事謹悉 而宜有一語以備博採 溫柔敦厚 固是詩家正法 而求之三百篇中 未必盡然 如冤置之適健 擊鼓之豪蕩 簡兮之奇逸 鶉奔, 相鼠之嚴苦 大東之恢詭 江漢, 常武之壯浪是也 故選於今人詩 恐亦不可局以一法 或看志趣 或看風槩 或看情致而取之 或溫或爽 或奇或正 但取其可取如何 詩言志 歌永言 聲依永 律和聲 由此觀之 聲律末也 莫先於志 而在文士心爲志 豈非道心之所發 方謂之詩乎 古人所謂詩不關理者 乃亂道也 選古今詩家 當先看其從違於理可也 且時世各有所尚 如魏晉之綺麗 齊梁之輕艷 晚唐之纖巧 宋人之典實 元明之浮華是已 今者中原之所尚 未知其

위의 글은 청나라 문인 潘庭筠의 요청을 받은 洪大容의 부탁으로 閔百順이 우리나라 역대의 시들을 선정하여 시선집을 만들 때 절친한 벗인 삼교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그것에 대해 답장으로 보낸 편지이다.<sup>15)</sup> 다소 긴 내용이기에는 중요한 요점만 정리해본다.

먼저 『시경』에 수록된 모든 작품이 은유돈후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시를 선발할 때 유가적인 관점만을 내세우지 말고 志趣[주제의식], 風概[풍격], 情致[흥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시인이 道心을 지녀야 함은 모든 것의 선결조건임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각 시대별로 숭상하던 시풍의 차이가 있었던 사실을 거론하며 어느 특정한 시풍이나 격식에 구애받지 말아야 하며, 중국인이 좋아하는 시풍만을 뽑아서 안 된다고 하였다. 또한 당시 중국이 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멸망한 명나라에 대한 한탄과 회복의식을 드러내는 작품은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춘추정신이 은미하게 담겨 있는 작품은 선발해도 좋을 것이라 조언하였다. 이전 시대 성리학자들이 견지했던 철저한 유가적 관점에서 다소 탈피하여 유연한 의식을 보여주지만, 시는 뜻을 말하는 것이며 시인에게 있어 뜻은 마음이고 따라서 道心을 드러내지 않은 시가 아니라고 단언을 하는 등 보수적인 시론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심을 지니기 위해서는 유교 경전의 학습을 통하여 부단한 수양을 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가 치악

如何 而向見槎川丈以詩受薊門李鐵翁之評 盖其所取在於唐體 無乃其俗習亦然耶 我東前輩之所尚 近於宋氏 今若專取近唐者 則必失其所長矣 且大丈夫終不可求媚於俗而有所趨避也 若選先輩詩 謂宜各取所長 而勿拘一格 以爲如何 春秋之義 當世所諱 然李鐵翁詩有云看書忽下千秋淚 臨水纔增萬里愁 三隱錄有云天下大事不可爲 意者中原之士 大抵多此等語 而俗亦不之怪也 先輩詩中其有春秋之微辭者 若不甚發露 則亦以入選如何 嚴陸或者江南之志士 則今但示之以東人月露之什 寧不爲所笑乎 文章之妙 妙於言語者 以其發之千萬人中 惟知者知其微意耳 不必憂人人之皆知也 先集中亦當依教書進百餘首 當在夏間矣”

15) 이 시선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남기, 「대동시선 해제」(『大東詩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1.)를 참고할 것.

산 大乘菴에 들어가 독서를 하는 등 젊어서부터 학문 연마에 매진하였음을 볼 때, 시문을 창작하는 데 있어 학문적 역량의 축적이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자신의 고백 및 동시대인들의 언급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sup>16)</sup>

시를 창작하는 데 있어 학문의 축적과 수양을 통해 올바른 도심을 배양해야 함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 본질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성리학자들이 지닌 일반적인 관념이었다. 문제는 그러한 도심을 시문으로 드러내는 방법에 있다. 이에 대해 삼교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 주목된다.

수아가 일찍이 시 짓는 것을 묻자 대답하여 말하기를, “시는 마땅히 唐調로 법을 삼아야 하니 묘사의 참됨[模寫之眞]을 귀하게 여긴다. 천성을 깊이 얻어 격조가 맑고 원만해지며, 천진(天真)이 넘쳐나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감동시키니, 감발징창의 빠름은 그러한 것을 기약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sup>17)</sup>

위의 글이 어린 초학자의 질문에 답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唐詩를 법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 언급은 한시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당시부터 배워야 함을 말한 것으로, 송시의 가치를 무시한 것이라 간주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보이는 ‘模寫之眞’을

16) 安在默, 『順興安氏族譜』卷12, 「梅窩公家狀後跋」, “次雪橋公錫徹 有高世之志 特立之操 文章雋健 學術精邃 以博學篤行 累薦拜寢郎 不就 與金暹齋燾·金寶家敏·林閔丹室百順 世稱上游四賢”

成大中, 『青城集』卷10, 「雪橋安公哀辭」, “蓋古之所謂士者 吾嘗得之於書矣 必其才足以濟其質 氣足以充其才 志足以帥其氣 力足以行其志 學足以制其力 識足以明其學 文足以發其識 辯足以張其文 夫然後方稱成德之士 而出則可以建功立事 處則可以蘊道立言 惟其如是也”

安錫徹, 『雪橋集』卷2, 「楸谷道中 懷李聖三瑞五」尾聯, “蓀谷茅齋書籍在, 何時細講聖賢精”

17) 安錫徹, 『雪橋漫錄』卷3, 「唐調」, “秀兒嘗問爲詩 答曰 詩當以唐調爲法 而貴乎模寫之眞 深得其天 調格清圓 天真洋溢 則自然動人 而感發懲創之速 有不期然而然者”

귀하게 여긴다는 표현이다. 물론 이것은 삼교만의 독특한 이론이 아니라 농암과 삼연 및 그들을 증유하던 당시 노론계 문인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상식적인 논리이다. 이들은 기존 시인들이 따랐던 詩法을 버리고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자연과 현상을 자기의 개성대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감정의 순수성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가식 없이 시로 창작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眞詩라고 본 것이다.<sup>18)</sup>

결론적으로 삼교는 농암과 삼연이 당시 팽배했던 복고파들의 시론을 배척하고 시인의 개성 및 펴진한 묘사를 강조한 시론을 충실히 계승하였다는 점에서, ‘김창협·김창흡 → 이병연 → 안석경’으로 이어지는 농연그룹의 대표적인 계선라인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Ⅲ. 삼교 시에 보이는 특징적 면모

#### 1. 속세의 초탈과 超詣의 美感

삼교는 젊어서 몇 번 과거에 응시하였다가 낙방한 이후 30대 중반부터 은거를 결심하고 이후 원주와 황성 등지에서 삶의 대부분을 보냈다. 그의 은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진다.

택당에게는 사위가 있는데 진사 안광옥이다. 그의 아들은 후인데, 함께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의 손자는 중관인데, 문장에 능하여 세마를 역임하였으나 술을 좋아함이 너무 지나쳤다. 그의 아들 석경도 또한 고문사에 능하다고 칭해지는데, 지금은 황성 산골짜기에 살고 있다. 이자경[李顯直]은 외재종인데, 자경이 일찍이 그에 대해 성대하게 칭찬을 하였다. 어제 호친 어른[金用謙]이 자경에게 말하기를, “그대도 또한 다시는 칭찬하지 말아라. 지금 시대에 고문사는 참으로 귀한 능력이다. 다만 이 사람은 올바른 행실이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나. 내가

18) 안대회, 『18세기 한국 한시사 연구』, 소명출판사, 1999.

듣자니 그는 깊은 산에 홀로 거처하면서 이미 90세 노모와 떨어져 지냈고, 또 처를 버려두고 데려가지 않았다. 그가 함께 산으로 들어간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다. 올바른 행실이 없음이 이와 같으니 나는 그를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였다.<sup>19)</sup>

삼교의 가문이 태당과 연혼을 맺어 대대로 문한가를 배출했다는 사실 및 삼교가 고문사에 능하여 당시에 이미 명성이 있었다는 점과 함께 부모와 처를 내버려 두고 홀로 산속에 은거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그의 행실이 올바르지 않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사실의 진위 여부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sup>20)</sup> 그에 대해 당시에 곱지 않은 시선을 지닌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교가 당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이유는 자신이 스스로 고백한 아래의 시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可笑蒼然安錫徹	가소롭구나 고리타분한 안석경
實與時人異情性	참으로 지금 사람과 다른 성정을 지녔으니.
朝市芬華目自閉	번화로운 조정과 시장에선 눈이 저절로 닫히더니
山野風雲口便詠	바람과 구름 있는 산야에서는 입이 곧바로 읊어댄다.
人中談繁有一睡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번거로우면 잠만 잘 뿐이고
馬上天豁除百病	말 위로 하늘이 확 트여야 온갖 병들 사라진다.

19) 黃胤錫, 『頤齋亂藁』. “澤堂有女婿 進士安光郁 其子曰圭壺 俱文科 其孫曰重觀 能文官洗馬 惟嗜酒太過耳 今其子錫徹 亦稱工古文詞 方居橫城峽中 卽李子敬外再從也 子敬嘗盛言之 昨日 瓠泉丈語子敬曰 君亦勿復相贊也 今世古文詞固貴 但此人無行奈何 吾聞其獨居深山 既與九十老母別居 又疎棄其妻不携也 未知其所與偕者爲誰 無行如此 吾不取也”

20) 삼교가 노년에 모친을 모시고 큰 형인 安錫倅이 현감으로 근무하던 淸河(지금의 포항)에 가서 경상도의 산수를 구경하고 돌아왔다는 기록도 있으며, (成大中, 『蟾洲謁遲齋先生 同傲聽用安叔華韻』의 세 번째 작품에 “安公時奉大夫人 赴其伯氏淸河任所 將觀東南山水而還”이라는 주석이 병기되어 있다.) 서울에 왔다가 지은 시에서 “가정을 떠난 지 50일이라 돌아갈 생각이 급한데, 푸른 물결 천산의 달 돌아보기도 어렵네. [離庭五旬歸思急, 難顧滄浪千山月]”(『雪橋集』 卷1, 「龍山」의 제 2연.) 라고 읊은 내용이 있기도 하다.

愛看山僧氣味涼	산승들의 청량한 기미 보기를 좋아하고
樂聞田夫言語硬	농부들의 생경한 말을 즐겨 듣는다.
最喜水遠風帆孤	가장 좋아하는 것은 홀로 먼 곳까지 배타고 다니는 것이고
不喜林昏寒鳥競	해질녘 숲속에서 새들이 바빠 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區區宇宙欲何如	좁디좁은 우주에서 어찌자는 것인가
可笑蒼然安錫傲	가소롭구나 고리타분한 안석경. <sup>21)</sup>

삼교집이 창작연대순으로 정리된 점을 고려하면 위의 시는 그가 20대 후반에 지은 것이다. 제목부터가 특이한데 당시 사람들과 성정이 다른 자신을 자조하고, 번잡한 속세에서는 의욕을 잃다가 자연에 들어가야 생기가 들고 시가 저절로 읊어진다고 하였다. 해가 지면 등지로 돌아가기 위해 바쁘게 서두르는 새들의 행태조차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여 남의 시선이나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홀로 자연을 유람하며 유유자적하게 지내는 삶을 갈망하였다. 따라서 그의 시들은 자연 속에 은거하며 지내는 삶과 생각을 드러낸 작품 및 전국을 유람하며 역사유적과 자연 경물을 대상으로 하여 지은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삼교시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澗水淙淙鳥語新	시냇물 졸졸 흐르고 새소리 새로운데
冠童游賞屬芳辰	어른과 아이들 노닐며 감상하기에 좋은 때라네.
玄雲去作驪州雨	먹구름 떠가서 여주에선 비가 되고
白雪流爲雉嶽春	흰 눈 녹아 흘러가면 치악산은 봄 맞겠네.
楊柳輕風聊喚酒	가벼이 흔들리는 버들은 술을 부르고
杏花斜日更宜人	석양녘 살구꽃은 사람 마음에 딱 맞구나.
人間萬事何須問	인간만사 따져서 무엇하랴
放曠逍遙任我真	홀쩍 벗어나 노닐며 나의 참됨에 맡겨야지. <sup>22)</sup>

삼교가 41세인 중년에 황성에 있는 마을에서 봄날 산에 올라 꽃을 감

21) 安錫傲, 『雪橋集』 卷1, 「可笑」.

22) 安錫傲, 『雪橋集』 卷2, 「橫城水南村 登高賞花」.

상하며 지은 시이다. 수련에서는 겨울이 가고 새로이 봄이 온 상황을 물소리와 새소리를 통해 표현하였다. 시는 곳이 시골이고 관직에 얽매인 몸이 아니기에 마음이 내키면 아무 부담 없이 봄놀이를 갈 수 있는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함련에서는 산에 올라 바라보는 원경을 묘사하였다. 먹구름이 서쪽으로 흘러가니 여주에는 비가 내릴 것이고, 흰 눈이 녹아 흐르니 외진 치악산에도 봄이 왔음을 읊었다. 경련에서는 시야를 좁혀 사랑거리인 버드나무를 보자 흥이 돌아 술 생각이 난다는 점과 저물녘 살구꽃이 핀 시골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이 자신의 내면세계와 부합한다고 서술하였다. 미련에서는 이러한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맛을 느꼈기에 번잡한 속세에서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을 초탈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드러냈다. 시 전체에서 특별한 전고나 기교를 구사함이 없이 눈에 보이는 풍경과 그 속에서 자연스레 야기된 감정을 담담하게 그려내었다.

위의 시와 같이 속세를 초월하여 자연에 은거하는 즐거움을 노래한 작품이 삼교의 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풍을 超詣로 규정한다. 超詣의 풍격은 사공도의 『이십사시품』에서 21번째 나오는 용어로,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삶에서 벗어나 초월적이고 이상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는 태도를 의미한다.<sup>23)</sup>

많은 시인들이 이러한 삶을 꿈꾸고 시로써 표출하였지만 직접 실행에 옮긴 경우는 많지 않다. 관직에 얽매인 신분을 벗어던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삼교는 젊어서부터 관직에 대한 미련을 끊었기에 속세를 떠날 수 있었는데, 그가 교유했던 인물 가운데 출처관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인물이 成大中(1732~1812)이다. 주지하듯이 성대중은 서얼 출신이라는 신분적 한계로 문과에 급제하고도 순탄한 벼슬길을 거치지 못하다가 영조의 庶孽通淸運動에 힘입어 청직에 등용된 인물로 통정운동의 상징적 존재이다. 金煥(1695~1775, 호는 遲齋)이 원주에 거처하며 강학하

23) 안대회, 『궁극의 시학』, 문학동네, 2013, pp.545-567.

였을 때 그에게 학문을 배운 인연으로 삼교와 알게 되었고, 원주에 내려 올 때만 삼교를 만날 수 있었기에 직접 대면한 적은 많지 않지만 서로 주고받은 서신과 시가 전해지고 있다.<sup>24)</sup> 또한 그의 아들인 성해응이 부친과 교류했던 인물을 정리하여 『世好錄』이란 책으로 엮으면서 삼교도 이름을 올렸다. 삼교와 성대중은 같은 당색을 지녔고 같은 스승을 모신 인연에다가 성격도 비슷하여 친분이 두터웠지만 출처관에 있어서는 전혀 상반된 입장을 지녔다.

안창에 놀러 갔다가 성대중을 보았다. 이별할 때 그에게 “도학, 경제, 문장이 어찌 선비의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니 마땅히 날마다 그 사이에서 부지런히 힘을 쓰며 들어가야 할 것이다. 부귀공명과 같은 것은 외물이라 그것을 기필함에 먼저 뜻을 두어서는 안 된다. 부귀공명이 와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더라도 마땅히 예의에 옳은지 그른지를 살펴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 조정의 어지러움이 심하니 원컨대 그대는 한발 물러서서 살피면서 옳고 그름을 헤아리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이다. 잠시 물러나 학문에 힘써야지 조금 성취한 것으로 자만해서는 안 되지 어떤가?”라고 하였다. 대중이 “만약 제가 한발 물러나 시세를 살핀다면 형세가 나아가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비록 그 사이에 급히 들어가더라도 발을 반만 들어 벗어나기 쉽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 내가 “발을 반만 들어더라도 결국엔 굳게 붙을 것이고, 또한 형세라는 것이 벗어날 수 있을 때 벗어나는 것이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sup>25)</sup>

24) 成大中, 『青城集』 卷10, 「雪橋安公哀辭」, “余少而狂愚 纔志於學 便有縱觀天下書 交結天下士之意 及壯 始得遲齋金先生而師之 因以識上游賢士多矣 最後識雪橋安公焉 其會面也 不過一再 所與往復者 才十數紙也 然其相與之深 實有終身不可忘者”

25) 安錫儼, 『雪橋漫錄』 卷3, 「成大中」, “遊於安昌 見成大中 臨別語之曰 道學經濟文章 何非儒者之事 惟當日以孳孳老於其中 至於富貴功名 則外物也 不可先有意必於彼也 彼其來逼至於不得已之境 猶宜審其禮義之當否 而去就可也 方今朝廷之貿亂甚矣 願君却立而視之 量其是非而入 未晚也 閒退力學 勿以小成自滿如何 大中答曰 使吾却立而視之 竊恐其勢不行也 雖則遽入於其間 而半納其履 要其輕於脫出如何 余曰 半納其履者 終於堅着 亦勢也 可脫而脫 寧非難乎”

삼교는 성대중에게 도학과 문장에 힘을 쏟으며 한평생을 보내야지 부귀공명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며, 지금 조정이 혼란한 상황이니 발을 들이지 말고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성대중은 지금 물러나면 다시 조정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으니 완전히 물러나지는 않고 시세를 관망하겠다고 대답을 한 일화이다. 성대중이 신분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삼교는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다. 이외에도 성대중은 삼교가 산속에 은거하며 자신의 역량을 펼치지 못하는 것을, 삼교는 성대중이 관직의 세계에서 위태롭게 지내는 것을 서로 안타까워하기도 하였다.<sup>26)</sup>

卓異深深夕照時	깊고 깊은 탁이산에 석양이 질 때
飄然一褐下山遲	홀쩍 일어나 갈옷 하나에 산을 천천히 내려오겠지.
騎牛老子身方隱	소를 타던 노자처럼 몸을 숨기고
玩世長源跡太奇	세상을 우습게보던 장원처럼 자취 크게 기이하네.
獨立不愁東土窄	홀로 서서 조선이 협소함을 근심하지 않고
幽吟應待後人知	조용히 읊조리며 후인이 알아주길 기다리겠지.
西風悵望南村會	가을바람 속 남촌의 모임 쓸쓸히 바라보자니
老圃寒香別有期	오래된 밭에 매화 향기 날 때면 별도로 기약이 있겠지. <sup>27)</sup>

성대중은 삼교를 卓異山人이라고 불렀는데, 삼교가 최종적으로 은거한 횡성군 둔내면 삼교리 근처에 있던 태기산의 이칭이자 ‘매우 특이한 사람’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성대중은 함련에서 삼교를 소를 타고 유유자적했던 노자와 권력자에게 머리 숙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던 李泌에 비유하였다. 경련에서는 당시 명분만 남아 있던 북벌의식을 삼교가 굳게 지니고 있는 점과 양옹처럼 후인들이 자신

26) 成大中, 『青城集』 卷8, 「書四十五疊唱和軸後」, “공이 탁이산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고, 나는 울진에 관리로 근무하면서 안찰을 왕래하였다. 공은 나를 불러 함께 숨자고 하였고, 나는 공에게 산을 나오라고 권하였다.[公方躬耕卓異山 余官蔚珍 往來安昌 公則招我偕隱 我則勸公出山]”

27) 成大中, 『青城集』 卷1, 「寄卓異山人」.

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점을 말하였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 매화가 필 때쯤에 서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시를 마무리하였다.

이 시를 받고 삼교는 세 편의 시를 써서 보내는데 그 중 마지막 수만 인용해 본다.

幸老東方無事時	조선이 태평할 때 늙어가 다행이니
山中日月更遲遲	산속의 하루는 더욱 더디구나.
數甌正得微醅好	몇 사발에 약간 취기가 돌아 좋은데
每飯仍兼必飽奇	매번 마실 땐 반드시 취하도록 하니 기이하구나.
滿地塵埃高鳥見	땅에 가득한 먼지를 높이 나는 새가 보고
渾天雨露野花知	하늘에 자욱한 비와 이슬을 들꽃은 알리라.
故人車乘休招我	벗이여 수레타고 나를 부르지 마소
桂老松枯忍負期	계수나무 소나무 늙어가는 데 차마 기약 저버릴 수 없으니. <sup>28)</sup>

『大東詩選』에도 뽑혀 있는 시로, 이 시의 경련은 예전부터 명구로 회자되었다. 수련은 나라에 큰 일이 없는 상황이라 산속에서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음을 말하였다. 함련은 禪學을 익히던 馮理라는 인물이 정이 천에게 밤중에 혼자 앉아 있는데 방에 빛이 생기는 특이한 일이 있었다고 하자, 정이천이 자신도 밥을 먹으면 반드시 배가 부르는 특이한 일이 있다고 한 고사<sup>29)</sup>를 변용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는 깊이 빠져 끝까지 가야 하는 특이한 성격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경련은 표현 자체로도 시원하고 상쾌한 맛을 물씬 풍기는 구절인데, 성대중에게 답한 시라는

28) 安錫徹, 『雪橋集』 卷2, 「次寄成士執」의 세 번째 작품.

29) 宋時烈, 『宋子大全』 附錄 卷16, 「朴光一錄」, “問曰 馮理謂伊川先生曰 今有一奇特事矣 伊川曰 何謂也 理曰 夜間宴坐 室中有光 伊川曰 某亦有奇特事 理請聞 伊川曰 每食必飽 馮理之室中有光 何謂也 伊川之以每食必飽爲奇特事 亦何也 先生曰 馮染於禪學者也 故爲此恍惚之語 而伊川深折之曰 某亦有奇特事 每食必飽 蓋言吾道之外於至近之處 而非如馮之虛無恍惚也 然則伊川此說 雖出於戲之 而實非所以戲之者 可見矣”

점을 고려할 때 담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경련의 출구에서 땅에 가득한 먼지는 속세의 번잡함이나 앞을 잘 내다볼 수 없는 관직의 불안함을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당사자는 알 수 없고, 그것을 초월하여 관조할 수 있는 자만이 알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대구에서 하늘에 자욱한 비와 이슬은 자연의 이치이며 은거생활의 묘미이다. 이러한 이치와 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정원에서 온갖 보살핌을 받으며 피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꽃이 아니다. 그것은 그러한 것을 직접 경험하는 들판의 잡꽃들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삼교는 자신의 처세관을 자연물에 의탁하여 맑고 경쾌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19세기 야담집인 『동야회집』에 삼교의 행적을 기록한 글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글의 결론에서 작자는 “外史氏는 말한다. 安寢郎은 진실로 바깥세상의 의취를 얻은 자이다. 그의 말을 들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비루하고 인색함을 완전히 씻게 해, 가슴속을 상쾌하게 해 준다.[外史氏曰 安寢郎是眞得物外之趣者 聽其言論 能使人盪然消鄙吝 而爽襟懷也]”라고 평가하였는데, 바로 이러한 면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蕭蕭風雨大江濤	큰 강가에 바람 불고 비 내리는데
落木寒花老屋深	잎 떨어진 나무와 국화는 오래된 집에서 깊어간다.
偶伴孤鴻蹲古石	때마침 이끼 낀 돌에 웅크리고 있는 외기러기와 짝하고
忽聆高士撫玄琴	갑자기 고상한 선비가 거문고 치는 소리 들린다.
滄波浩渺來千里	물결은 넘실넘실 천리에서 흘러오고
雲嶽嵯峨起萬尋	구름 낀 산은 우뚝하니 만 길이나 솟았네.
一曲引人浮世外	한 곡조 사람을 세상 밖으로 인도하니
白頭瀟灑碧蘿心	머리 허연 늙은이 맑고 높은 은자의 마음. <sup>30)</sup>

위의 시는 거문고 소리를 들으며 느낀 감정을 읊은 시이다. 앞의 시에서 속세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자신의 뜻에 맞게 살겠다는 다짐과 의도를 읽을 수 있다면, 위의 작품은 고상한 운치를 내포하여 긴 여운을 남

30) 安錫徹, 『雪橋集』 卷2, 「木溪趙上舍相元家 聽主人彈琴」.

게 한다. 김학진이 삼교집 서문에서 “그의 시를 읽으면 정신이 시원해지고 기세와 운치가 높고도 예스럽다.[誦其詩 神精灑落 氣韻高古]”라고 평한 것도 이러한 점에 주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落木, 寒花, 老屋, 孤鴻, 古石, 玄琴, 雲嶽 등의 시어가 차갑고 황량한 느낌을 주지만 부대끼며 살아가는 속세의 소란스러움과 대비되는 絶俗의 느낌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sup>31)</sup> 특히 미련에서 거문고 소리가 속세를 초탈하여 물외의 경지로 인도한다고 하였는데, 마지막 구절은 서술어 없이 명사구를 배치하여 함축적인 표현을 하면서 무한한 心象의 확대를 가져오게 하였다. 무성한 덩굴의 푸른 빛깔이 백발의 흰 색과 선명하게 대비되어 속세에서는 늙은 몸이지만 거문고 소리가 속세 밖으로 이끌어 맑고 고상한 은자의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삼교가 속세를 초탈하여 자연 속에서 지내는 흥취를 시로 드러낸 면모를 살펴보았다. 여기에 더하여 삼교의 시에서 보이는 특이한 점은 사회 현실이나 정치 또는 세태에 대하여 강렬하게 비판하는 의식을 드러낸 작품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sup>32)</sup> 농암과 삼연을 중심으로 전개된 眞詩운동의 결과 당시 부조리한 정치 및 사회 체제로 인해 고통받는 농민들의 현실을 사실 그대로 묘사하여 고발하는 사회시가 많이 등장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sup>33)</sup> 삼교는 삼교에 은거하면서 보고 느낀 감정을 읊은 79수의 연작시인 『雪橋漫詠』을 창작하였는데,<sup>34)</sup>

31) 이 중에서 기러기와 거문고는 예전부터 초예의 풍격을 드러내는 대상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32) 물론 『擬大庭對策』이라는 글에서는 북벌, 인재 등용, 시속의 문란 및 균역법 등 정치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산문도 남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시에서 이러한 면을 찾기는 어렵다.

33) 대표적으로 삼교와 동시대를 살았던 權擻(1713~1770)이 眞의 추구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당시 사회 현실을 장편의 고시로 비판했던 일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지양의 『震溟 權擻의 ‘眞’ 추구하고 社會詩』(성균관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2001.) 참조.

34) 『雪橋集』에는 『雪橋漫詠 九首』라 하여 9수만이 기록되어 있고, 규장각에

편수의 차이는 있지만 그가 스승으로 생각한<sup>35)</sup> 삼연이 인제에 은둔하면서 쓴 연작시 「갈역잡영」에서 위선에 가득찬 사대부들의 부패 및 관리와 아전의 횡포와 무능 등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드러낸다. 삼교의 시에서 비판적인 의식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을 살펴보면, 화폐가 유통된 후 순박했던 사람들의 속성이 사라지고 부호들만 부를 축적하기 쉬워졌다고 비판한 시<sup>36)</sup>와 압구정을 지나면서 “좋은 때라 유람하는 벼슬아치 많은데, 누가 범중엄이 생각했던 진퇴의 근심을 품고 있을까.[良時遊賞多冠蓋, 孰抱希文進退憂]”<sup>37)</sup>라고 하여 임금과 백성만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관리가 적음을 완곡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보일 뿐이다. 삼교가 당시 정치와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관리들의 문제점 및 그 속에서 고통 받는 백성들의 애환을 몰랐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은거를 선택한 이상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sup>38)</sup> 이러한 면도 그의 시가 초예의 느낌이 강한 것과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 2. 조선에 대한 자부심과 反淸尊明의식의 표출

위에서 속세를 벗어나 자연 속에 은거하는 즐거움을 담담한 필체로 그려낸 시를 살펴보았다. 이와는 달리 격양된 정서와 비장함을 느낄 수

---

소장된 안석경의 금강산 기행문인 「東行記」의 뒷부분에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뒷부분이 낙절되어 현재까지 확인된 편수는 모두 79수이다.

- 35) 金鶴鎮, 『雪橋集』 卷1, 「雪橋安先生文集序」, “猶及三淵之門而薰炙之 則淵源之正 有自來矣”  
安錫徹, 『雪橋集』 上, 「夢百淵先生記」, “余自童時 喜聞先生之事 喜讀先生之書 喜誦先生之詩 每不覺心開肺豁 而神守之飛越也”
- 36) 安錫徹, 『雪橋集』 卷1, 「水白村 訪崔進士」. 이 작품에서는 삼교 자신의 말이 아니라 최진사라는 사람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37) 安錫徹, 『雪橋集』 卷1, 「狎鷗亭」의 尾聯.
- 38) 앞에서 본 시에서 “인간만사 따져서 무엇하랴[人間萬事何須問]”라고 말한 것과 상통한다.

있는 시들도 보이는데, 대체로 병자호란과 관련된 유적을 소재로 한 작품과 북벌의식을 바탕으로 망한 명나라의 회복과 청나라를 배척하는 내용의 작품들이 이러한 경향을 지닌다.

조선 후기 지식인들 가운데는 자신이 소외받는 신분 계층이라는 점, 과거제도의 불합리성, 비리가 만연한 과거제도의 부정부패 등을 거론하며 과거에 응시하지 않은 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삼교가 몇 번의 낙방 후 다시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비록 명분일 지라도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여주의 임백후는 뜻있는 선비이다. 나의 산속 거처에 와서 함께 천하의 일을 이야기하다 세상 사람들이 존왕양적의 의리에 소홀한 것을 탄식하며 분개한 것이 오래되었다. 백후가 출처를 물었다. 나는 답하기를, “조정에서 만약 명나라와 관련된 일로써 과거를 본다면 어찌 감히 가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외진 산속에서 말라죽는 것 밖에는 대책이 없다.”라고 하였다.<sup>39)</sup>

일찍이 말하기를, “명나라는 나의 부모와 같은 나라인데, 부모의 원수를 아직 갚지 못하였으니 내 어찌 벼슬살이를 하겠는가.”하였고, 강릉참봉을 제수하였지만 나아가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교지에서 청나라 군주의 기년을 쓴 것을 차마 볼 수가 없다.”라고 하고 끝내 출사하지 않고 세상을 마쳤다.<sup>40)</sup>

앞의 인용문에서 ‘명나라와 관련된 일[大明之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명나라의 과거제도를 따르거나 또는 명나라와 관련된 시험문제의 출제 등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나라의 영향권 안에 있던 당시 조선에서 치르는 과거에는 응시할 수 없다는 내

39) 安錫傲, 『雪橋漫錄』 卷1, 「尊王攘狄」, “驪州林伯厚志士也 來山居與言天下事 嘆世人忽於尊王攘狄之義 而慨然者 久之 伯厚問出處 答曰 朝廷若以大明之故 而有科舉 則何敢不赴 不則枯槁窮山之外 無策矣”

40) 成海應, 『研經齋全集』 卷49, 「世好錄」[安錫傲], “嘗言皇明吾父母邦也 父母之讐未復 吾何以仕 除康陵參奉 不就 曰吾不忍見教旨書清主紀年也 卒不出山而終 公既無求於世 澹然自樂”

용이며, 두 번째 인용문은 청나라 군주의 연호가 써 있는 교지를 받을 수 없기에 제수된 관직도 마다했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사승관계에서 경학과 처신에 있어서는 송시열을 스승으로 삼았다고 하였던 바, 그는 춘추의리정신을 바탕으로 한 북벌론을 삶의 제일 목표로 삼았다.<sup>41)</sup> 삼교의 북벌의식은 『삼교집』 4권에 수록된 「南漢山城西將臺無忘樓記」라는 작품에 잘 드러나는 데, 북벌의 정당성 및 당시 일부 지식인들이 지녔던 북벌론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에 대한 신랄한 비판, 북벌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거론하였다.<sup>42)</sup> 본고에서는 그의 시를 통해 이러한 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江都遊子淚霏霏	강화에 온 나그네 눈물 줄줄 흘러며
下馬燒香忠烈祠	말에서 내려 충렬사에서 분향한다.
秋草分披承露後	가을 풀은 이슬 맞아 어지러이 흩어지고
寒松挺立冒風時	차가운 소나무는 바람 속에도 우뚝 서 있다.
綺羅跌蕩眼前樂	기생들 한바탕 노니는 눈앞의 즐거움
俎豆蕭條身後悲	쓸쓸한 제기는 죽은 뒤의 슬픔.
只有人禽明有辨	사람과 금수는 명확한 구별이 있는 법
不慚天地是男兒	하늘과 땅에 부끄럽지 않아야 남아라네. <sup>43)</sup>

위의 시는 해서지방을 유람하면서 강화도 충렬사에 들러 지은 시이다. 충렬사는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에서 순절한 金尙容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사당이다. 수련에서는 강화도에 와서 충렬사에 분향하는 시인의 모습을 서술하였고, 함련에서는 풀과 소나무를 대비시켜 항

41) 成大中, 『青城集』 卷10, 「雪橋安公哀辭」, “公平生言議 常以孝廟尤翁之心爲心 其不就職 盖亦蹈海之義也”

金鶴鎮, 『雪橋集』 卷1, 「雪橋安先生文集序」, “雪橋尙氣節 痛神州陸沉 平生所 尊慕者尤翁慷慨氣味”

42) 이에 대해서는 강혜규의 「雪橋 安錫徹의 散文 研究」(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에서 자세하게 분석하여 참고가 된다.

43) 安錫徹, 『雪橋集』 卷1, 「忠烈祠」.

복을 거부하고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킨 김상용의 기개를 칭송하였다. 경련에서는 죽은 뒤에 제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쓸쓸한 충렬사의 모습을 화려한 잔치와 대비시켜 비애감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였고, 목숨에 구애받지 않고 타고난 지조를 지켜야 진정한 남아라고 하면서 결말 짓고 있다. 전체적으로 풀과 소나무, 화려한 잔치와 쓸쓸한 제사도구의 대비를 통하여 강한 비장미와 당시 세대에 대한 작자의 울분을 잘 표출하였다. 위의 시 외에도 “성에 가득한 원귀는 어느 때나 풀릴까, 북으로 오랑캐 하늘 바라보니 분한 눈물 빗발친다.[滿城冤鬼紆何日 北望胡天憤涕橫]<sup>44)</sup>”, “성대한 시절이나 풍류 어찌 이슬거나, 오랑캐 먼지 잔뜩 일어 슬프게 하는구나.[盛際風流那可續 胡塵浹滌使人悲]<sup>45)</sup>”, “어느 때나 모두 모아 서쪽으로 한꺼번에 보내, 중국이 개돼지로 물들었던 세월을 다 쓸어버릴거나.[何時括取西傾去 淨洗中華犬馬年]<sup>46)</sup>” 등 청에 대한 분노와 울분을 시화한 것이 많이 보인다.

삼교는 위와 같이 울분과 분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명나라의 부흥<sup>47)</sup>과 복벌을 통한 복수의 염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毋畫朝鮮謂小東	조선을 선 그어 동쪽의 작은 나라라 말하지 마라
北臨胡地莽無窮	북으로 끝없이 펼쳐진 오랑캐 땅과 접해 있으니.
白山抱日千峰雪	태양을 품고 있는 백두산 천 봉우리에 눈 내리고
青海浮天萬里風	하늘 떠 있는 푸른 바다엔 만리의 바람 불어온다.
誰倚紅旗生意氣	누가 붉은 깃발에 기대 의기를 낸다면
不堪黃卷若英雄	서적에 수록된 영웅과 같은 행적을 감당하지 못하리오.

44) 安錫徹, 『雪橋集』 卷1, 「泊月申津 登鸞尾亭」의 尾聯.

45) 安錫徹, 『雪橋集』 卷2, 「泊蚕頭」의 尾聯.

46) 安錫徹, 『雪橋集』 卷2, 「寶蓮口詠海」의 尾聯.

47) 安錫徹, 『雪橋集』 卷2, 「謹次念齋鄭奉朝賀送曆書韻」의 3구와 4구, “어찌 하면 승정의 실마리 얻어, 다시 건무 연호 세울까.[那得崇禎緒 重爲建武年]” 安錫徹, 『雪橋集』 卷2, 「次李龜巢德謙卒歲吟」 두 번째 작품의 3구와 4구, “어느 때나 통렬하게 비린내 다 걷어낼는지, 명나라 다시 부흥하기를 거듭 바란다.[何時痛刮腥塵去, 重布皇家覆載仁]”

扶桑剪取何枝好    부상에서 어느 가지 잘라 오면 적당하려나  
與我新爲剋敵弓    나와 함께 원수 갚을 활 새로 만들기에.<sup>48)</sup>

위의 시는 북평사로 부임하는 朴盛源에게 부친 시의 두 번째 작품이다. 박성원은 김창협(金昌協)의 외손자이면서 삼교(三交)에게는 처형이 된다. 첫 번째 작품에서 삼교는 조선이 약하여 원수인 청나라를 섬겨야 하는 현실이 슬프다고 하고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원나라를 몰아내기 위해 격문을 돌렸던 고사를 끌어와 힘찬 필치로 그런 격문을 쓰고 싶다는 희망을 드러내었다.<sup>49)</sup>

위의 작품 수련에서는 우리나라를 스스로 東夷라고 하여 움츠러드는 당시인들의 생각을 비웃고 북으로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 있다고 하여 기상을 높였다. 북쪽은 오랑캐가 차지하고 있기에 마음껏 뻗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함련에서는 태양을 품고 있을 정도로 높은 백두산에 눈이 내리는 풍경과 하늘을 띄울 정도로 드넓은 동해를 묘사하여 그 기상을 이어가고 있다. 경련에서는 역사서에 기록된 영웅처럼 의기를 표출하도록 박성원에게 권하고 있다. 미련에서는 해가 떠오르는 곳에 있다는 神木으로 원수 갚을 활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도치를 통하여 보다 웅장하게 밝히고 있다.

위 시의 수련에서도 드러나듯이 삼교에게 있어 조선은 동쪽 구석에 처박혀 아무 힘도 없는 나약한 나라가 아니다. 이는 당시 지식인들이 명이 망한 후 정통을 조선이 이었다고 여긴 小中華 의식과도 구별이 된다. 사방이 모두 오랑캐로 둘러싸인 현실이기에 오히려 어디로든 치고 나갈 수 있다는 보다 적극적인 논리이다. 삼교는 금강산 그림을 보고 지은 시에서 “나로 하여금 조선에 태어남을 한탄하지 않게 하니, 조만간 짚신

48) 安錫徹, 『雪橋集』 卷2, 「寄北評事朴公茂」의 두 번째 작품.

49) 安錫徹, 『雪橋集』 卷2, 「寄北評事朴公茂」의 첫 번째 작품의 尾聯, “어느 때나 반짝이는 용수필로, 우리 주왕을 이어 중국에 격문을 돌릴까.[何時燁燁龍鬚筆, 紹我朱王檄九州]”

신고 여기에 갈 수 있으리라.[使我不恨生朝鮮 早晚靑鞋賴有是]<sup>50)</sup>라고 하여 국토의 아름다움을 말하기도 하였고, 북한산 백운대에 올라 지은 시에서는 “저절로 오악과 통하는 정신이 있으니, 기세가 좁고 거친 데 치우쳐 있다고 누가 말하겠는가.[自有精神通五嶽 誰言氣勢局褊荒]<sup>51)</sup>”라고 하여 조선의 기세가 중국까지 뻗을 수 있음을 노래하였으며, 금강산에 가서 지은 시에서는 “외진 나라에 태어났다 한숨 쉬지 말게, 사방 바다로 내달리는 정신을 누가 막을 수 있으랴.[休嗟所處爲偏國 四海馳神孰可裁]<sup>52)</sup>”라고 하여 조선을 벗어나 해외로 시야를 돌리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청나라를 몰아내고 명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식이 그 기반에 깔려 있음은 물론이다.

북벌에 대한 강렬한 열망은 동시대 인물의 죽음을 애도한 시에서도 드러난다.

朝鮮小國苦啾喧	조선은 소국이라고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소리 듣기 싫으니
曠士常如鳥在樊	홍금이 넓게 트인 선비는 항상 울타리에 갇힌 새와 같았네.
落髮嵩山知有意	송산에서 머리 떨구겠다는 말에서 뜻이 있음을 알았는데
捐身香岳豈抽魂	묘향산에서 생을 마쳤으니 어찌 영혼을 뽑으랴.
寧從牛後千年活	차라리 소꼬리가 되어 천년을 살 바에야
要托雲頭萬里翻	구름 끝에 붙어 만 리까지 날아감이 낫다네.
伍子雙瞳何處掛	오자서의 두 눈동자 어느 곳에 걸려있나
留看天將破燕門	하늘이 장차 오랑캐의 관문 깨트림을 머물러 보리라. <sup>53)</sup>

위 시의 대상인물인 宋能相(1710~1758)은 송시열의 玄孫으로 말년에 벼슬을 그만두고 묘향산에 은거하다 숨졌다. 洪翰周의 『智水拈筆』에는 송능상이 순정한 유학을 배우지 않았고 광인처럼 행동을 하다가 죽었다

50) 安錫徹, 『雪橋集』 卷1, 「義原看終南山人畫金剛山」의 마지막 연.

51) 安錫徹, 『雪橋集』 卷1, 「登華山白雲臺」의 頸聯.

52) 安錫徹, 『雪橋集』 卷2, 「天逸臺」의 尾聯.

53) 安錫徹, 『雪橋集』 卷2, 「悼宋士能先生 并序」.

고 기록되어 있다.<sup>54)</sup> 삼교는 이 시의 서문에서 송능상이 뛰어난 재주와 올바른 학식을 지녔고, 송시열의 뜻을 이어받아 尊王攘狄의 의리를 품고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그가 북벌이 실행되었다면 막부에서 뛰어난 활약을 했을 것이라고 칭송하면서도 그가 떠나기 전에 썼다고 하는 시를 통해 외진 곳에서 죽을 것이라 예견하였다. 삼교는 위의 시에서 망자에 대한 애도보다는 그의 죽음을 북벌론과 연결시키고 오자서의 고사를 끌어와 두 눈동자만은 남아서 청나라가 망함을 지켜볼 것이라고 하여 장렬한 죽음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 3. 逼真한 경물묘사와 神似的 추구

삼교가 어린 아이에게 시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唐詩를 법으로 삼아 묘사의 참됨[模寫之眞]을 귀하게 여기고 天真이 넘쳐나면 사람을 자연스럽게 감동시킨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아래에 인용한 시에서도 위와 비슷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前略)

詩道昔有聞	시도를 옛날에 들은 바 있어
分明本性靈	성령을 근본으로 함이 분명하다네.
要之循正理	요약하면 올바른 理를 따라야
方得結元精	바야흐로 원기가 완성된다네.

(中略)

先進蓋如是	선배들은 대개 이와 같았으니
神入有天出	정신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표출하였네.
濁俗汚晚輩	혼탁한 속세에 물들어 버린 후인들은

54) 洪翰周, 『智水拈筆』 卷7, “雖以經術被選 其學尙氣好奇 非醇於儒者 … 其遊寧邊之香山也 上普賢寺絕頂一小菴 時值伏日 烹狗作羹 方醉飽 忽手持狗肉一片 上法堂汚穢佛口 大罵曰 汝何食素喫 吾狗羹無妨 弄謔備至 言未訖 雲坪○倒 九窺流血 頃刻而死 方盛暑 而巖壑險峻 僧徒盡力 攀曳以下 而尸已朽爛臭穢難近云 此亦君子之事乎”

千人嗟一律 많은 시인들이 하나의 율격만을 읊어대네.

(中略)

嗜淺天機深 욕심이 없어야 천기는 깊어지며

思專神力通 생각을 오로지 하여야 신력과 통한다네.<sup>55)</sup>

(後略)

위의 시는 丁範祖(1723~1801)가, 평생을 포의로 지내며 제천에 은거하다 48세에 세상을 떠난 鄭弘祖(자는 士述·公述, 호는 樂翁)를 애도한 시에 차운한 작품 중의 일부분이다.<sup>56)</sup> 모두 126구에 달하는 장편 고시로, 정범조가 고시에 특장을 지녀 한위고시를 본떠 오언고시로 작품을 지었지만 삼고 자신은 오언고시의 풍격에 능하지 못해 제대로 짓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이 시의 첫 부분에서 조선의 시가 날마다 쇠퇴하여 탄식한다고 말하고 삼연이 세상을 떠난 후 조선 전체에 눈에 차는 시인이 없다고 한 후 詩道에 대해 언급하였다. 詩道가 性靈을 근본으로 한다는 가르침을 예전에 들었다고 한 것은 삼연의 “무릇 시는 무엇인가? 인간의 性靈에 근원을 두고 物象을 빌리는 것이다.”<sup>57)</sup>라는 언급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서 性靈은 시인의 순수한 마음을 지칭하는데, 다음 구절에서 올바른 理를 따라야 제대로 된 성령을 지니게 된다고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연결시킨다면 道心を 바탕으로 한 순수하고 바른 마음을 지니는 것이 시를 쓰는 데 있어 가장 바탕이 된다고 본 것이다.

인용한 시의 다음 단락에서는 시적 대상에 내재해 있는 정신을 옮겨 오면 자연스럽게 시가 지어진다는 점을 말하였다. 이러한 논리는 동양의 전통적인 畫論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形似와 神似

55) 安錫傲, 『雪橋集』 卷1, 「次丁法正悼鄭士述詩韻 却寄」.

56) 정범조는 정홍조를 漢魏六朝詩에 능하고 거기에 唐詩를 두루 익힌 古作者로 존송하였다고 한다.(심경호, 「18세기 중·말엽의 남인 문단」, 『국문학연구』 1집, 국문학회, 1997.)

57) 金昌翁, 『三淵集』 卷23, 「何山集序」, “夫詩何爲者也 原於性靈 假於物象”

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론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神似는 形似에 대를 이루는 개념으로 形似의 실질은 예술창작 대상의 외형 혹은 표상에 대한 진실한 묘사를 가리키는 반면, 神似의 실질은 예술창작 대상의 내재된 본질의 특징에 대한 진실한 묘사를 가리킨다. 중국 고대문예가들은 神似를 주로 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것은 바로 객관사물의 본질의 특징에 대해 진실한 묘사를 한다는 면을 중시한다는 것이다.<sup>58)</sup> 즉 形似가 대상의 외형적인 특징을 묘사하여 뾰뚱하게 사람들의 감각에 직접 호소하는 것이라면, 神似는 形似의 기초위에서 대상의 정신, 기질, 품격, 운치 등을 드러내어 작가의 사상, 감정을 그 속에 투입시키는 것이다.<sup>59)</sup> 神似가 제대로 된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形似가 전제조건임을 고려할 때 시적 대상에 대한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을 지양하고 사실적인 묘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삼교가 위에서 模寫之眞과 天真을 중요하게 여긴 언급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정섭이 이병연의 경물시를 보고 “그의 시는 경치와 사물을 묘사하는 데 뛰어나니 마치 거울에 비춘 듯 지은 시마다 모두 眞하다.[其爲詩長於摸境狀物 如臨鏡寫照 筆筆皆眞]”라고 평가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sup>60)</sup>

삼교가 스승으로 간주한 이병연이 부귀영화를 하찮게 여기고 전국을 유람하며 수려한 자연경관을 시로 읊은 것에 주목하였듯이,<sup>61)</sup> 삼교 자신도 금강산을 두 번 유람한 것 외에 해서지방 및 경상도 지방을 여행하면서 본 풍경을 대상으로 읊은 시가 많다. 또한 삼교가 한평생 거주하

58) 張少康 『中國古代文學創作論』, 北京大學出版社, 1982, p.162.

59) 정우봉, 「조선후기 문예이론에 있어 形과 神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4호, 민족문학사연구소, 1993, pp.102-103.

60) 김형술, 「槎川 李秉淵의 생애와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4집, 태학사, 2010, pp.94-95.

61) 강혜선 교수는 이병연이 금강산을 유람하며 지은 경물시를 ‘形似와 神情’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는데, 이는 삼교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듯하다.(강혜선, 「槎川 李秉淵의 金剛山詩 研究」, 『한국한문학연구』 16집, 한국한문학회, 1993.)

였던 지역도 충주, 제천, 홍천, 원주, 횡성 등 강이 넓고 산이 깊은 곳이었다.

早向編崖路不分	펼쳐진 절벽 일찍 향하니 길이 분명치 않은데
松亭貫酒有餘醺	송정에서 술을 사니 남은 향기 넉넉하다.
東風馬飲浮花水	봄바람에 말은 꽃 떠가는 물을 마시고
初日鶯翻宿樹雲	해 뜨자 피꼬리는 잠자던 나뭇가 구름에서 날아오른다.
蚕女携筐青沃沃	잠ner가 들고 있는 광주리에는 푸른 빛 가득하고
漁翁收網白紛紛	어부가 거물을 거두니 흰 물고기들이 펼쳐 뛰네.
一區烟景眞堪畫	이곳의 물안개 편 풍경 참으로 그림으로 그릴만하니
歎賞曾看漢浦文	일찍이 미포의 글을 보고 탄상했었지. <sup>62)</sup>

위의 시는 삽교가 한강을 이용하여 서울을 오가며 지은 시인데,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漢浦라는 시어를 통해 石室書院이 위치한 경기도 楊州 漢陰 부근임을 알 수 있다. 제목인 編崖는 병풍처럼 죽 펼쳐져 있는 절벽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시에서는 절벽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에서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꽃이 떠가는 물을 마시는 말과 햇살을 받으며 하늘로 날아오르는 피꼬리의 모습을 그렸고, 경련에서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묘사하였다. 뽕잎을 따는 아낙네,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모습은 한편에 등장한 동물들과 함께 바로 눈앞에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어떠한 수식이나 과장된 표현도 없지만 색채감을 살려 생동감 있게 경물을 묘사한 솜씨가 뛰어난데, 바로 이러한 점이 逼真한 경물묘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義林池外山蒼然	의림지 밖 산은 푸르스름한데
義林池中天正圓	의림지 안 하늘은 정말로 둥글구나.
玄冬波結義林池	한겨울 물결도 얼어붙은 의림지
耿耿我行蛟龍顛	조심조심 나는 한복판으로 나아간다.

62) 安錫徹, 『雪橋集』 卷1, 「編崖」.

雪花飄瞥不肯下	눈꽃은 나부끼며 연못에 내려앉지 않고
驚鳥欹斜無敢前	놀란 새는 기우뚱대며 나아가지 못한다.
極目眞箇水晶盤	보이는 건 참으로 수정 쟁반 같으니
盤上坐待明月懸	쟁반 위에 앉아서 밝은 달 떠오기를 기다린다.

義林池水水之盛	의림지에 물은 가득한데
凝寒瑩然大明鏡	맑게 얼어붙어 커다란 거울 같네.
長風不動一縷紋	거센 바람에도 무늬 하나 흔들리지 않고
鳥獸雲山箇箇映	조수와 운산이 하나하나 비춰있네.
曠而澄焉極其朗	드넓으면서도 깨끗하니 지극히 맑고
虛而定焉極其正	비었으면서도 고요하니 지극히 올바른네.
嗟乎丈夫當如是	아아! 장부는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니
汨沒塵埃彼何性	속세에 골몰하는 저들은 어떤 품성이더냐. <sup>63)</sup>

위에 인용한 두 편의 시는 겨울날 얼어붙은 의림지를 소재로 쓴 시이다. 첫 번째 작품에서는 바람이 세찬 의림지의 풍광과 조심스럽게 의림지 속으로 들어가는 시인의 모습을 묘사하였는데, 마치 독자가 직접 그 경험을 하는 것처럼 생동감이 느껴진다.

두 번째 작품은 얼어붙은 의림지의 모습을 묘사한 전반부와 얼어붙은 의림지의 모습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도를 깨우친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겨울처럼 투명하게 얼은 의림지에서 삼교는 어떠한 외부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지조와 삼라만상 모든 것을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수용하는 넓은 포용력을 포착한 것이다. 첫 번째 시에서 눈앞에 펼쳐진 경물에 대한 꾀진한 묘사에 치중하였다면, 두 번째 시에서는 이에서 더 나아가 形似를 넘어 시인의 맑고 깨끗한 정신세계와 올바른 품성을 투영하여 神似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삼교는 시를 짓는데 있어 올바른 의식을 바탕으로 가식 없는 순수한 감정의 표출과 사물에 대한 꾀진한 묘사를 중시하였는데,

63) 安錫徹, 『雪橋集』 卷1, 「義林池 與季華踏氷」의 첫 번째와 세 번째 작품.

이는 농연그룹 시인들의 眞詩 운동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 IV. 결론

지금까지 삼교의 시에 대한 인식과 그의 시에 드러난 특징적인 면모를 살펴보았다. 본론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삼교는 특별한 스승 없이 부친 및 부친과 친분이 있던 명사들을 통해 학문을 익혔다. 또한 당시 시인으로 이름을 날렸던 김창흡과 이병연을 사숙하여 그들의 시의식과 작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시인의 개성 및 꺾어진 묘사를 강조한 농암과 삼연의 창작 정신이 이병연을 거쳐 삼교에게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바, 그는 학문적 역량과 배양과 수양을 기본 토대로 하되, 시인의 순수한 감정을 바탕으로 시적 대상에 대해 꺾진하게 묘사하는 것이 참된 시라고 생각하였다.

삼교의 시에는 속세를 초탈하여 자연에 은거하며 지내는 즐거움 및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읊은 시가 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송시열을 삶의 좌표로 삼아 북벌론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위축된 조선의 기개가 다시 펼쳐지기를 바라는 염원을 시로 표출하였다. 작법적인 측면에서는 가식 없는 경물의 묘사를 중시하였는데, 경물의 사실적인 묘사와 더불어 경물이 담고 있는 정신적인 측면에 대한 묘사에도 치중하였다.

<參考 文獻>

- 安錫傲, 『雪橋集』, 규장각 소장본, 『韓國文集叢刊』 233, 민족문화추진회.  
——, 『雪橋集』 上·中·下, 동양문고 소장본, 서벽외사해외수일본 5~7, 아세아문화사, 1985.  
——, 『雪橋詩抄』, 동양문고 소장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사이트.  
金昌翁, 『三淵集』, 『韓國文集叢刊』 165~167, 민족문화추진회.  
成大中, 『青城集』, 『韓國文集叢刊』 248, 민족문화추진회.  
成海應, 『研經齋全集』, 『韓國文集叢刊』 273~279, 민족문화추진회.  
宋時烈, 『宋子大全』, 『韓國文集叢刊』 108~116, 민족문화추진회.  
尹行恁, 『方是閒輯』, 전승렬 옮김, 『(역주) 방시한집』, 보고서, 2006.  
李奎象, 『并世才彦錄』, 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분과 옮김, 『18세기 조선인물지』, 창작과비평사, 1997.  
李源命, 『東野彙輯』, 정명기 편, 『原本 東野彙輯』 上·下, 보고서, 1992.  
鄭來僑, 『浣巖集』, 『韓國文集叢刊』 197, 민족문화추진회.  
洪翰周, 『智水拈筆』, 아세아문화사영인본.  
黃胤錫, 『頤齋亂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順興安氏族譜』, 규장각소장본.
- 강혜규, 「雪橋 安錫傲의 散文 研究」,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강혜신, 「槎川 李秉淵의 金剛山詩 研究」, 『한국한문학연구』 16집, 한국한문학회, 1993.  
김근태, 「삼교 안석경의 생애와 시」, 『문헌과 해석』 28호, 문헌과해석사, 2004.  
김남기, 「대동시선 해제」, 『大東詩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1.  
김형술, 「槎川 李秉淵의 생애와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4집, 태학사, 2010.  
심경호, 「18세기 중·말엽의 남인 문단」, 『국문학연구』 1집, 국문학회, 1997.  
안대회, 『18세기 한국 한시사 연구』, 소명출판사, 1999.  
——, 『궁극의 시학』, 문학동네, 2013.  
이명학, 「삼교만록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이지양, 「震溟 權憲의 ‘眞’ 추구와 社會詩」,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정우봉, 「조선후기 문예이론에 있어 形과 神의 문제」, 『민족문화사연구』4호,  
민족문화사연구소, 1993.

張少康, 『中國古代文學創作論』, 北京大學出版社, 1982.

### Abstract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Poetry and Poetic world  
of Sapkyo An Suk-Kyong / Kim Geun Tai\**

This paper aims to consider the perception of poetry and poetic world of Sapkyo An Suk-Kyong. Without any special mentor, Sapkyo acquired his learning by prominent men intimated with his father. He also admired Kim Chang-Heup and Lee Byoung Yeon, famous poets at that time, so that emulated and accepted their poetic consciousness and composition method. He believed, fundamentally, it's reasonable for him to foster and cultivate academic capacity, but what a true poem is to describe the poetic object with genuine feelings as well as its verisimilitude. In his poetry, it feels like strong sense of beauty of the uncommon and profound style because mostly they recite the beauty of natural landscape or a joy of retiring from the world into the nature. Moreover he strongly advocated the Plan for a Northern Expedition with thought of Song Si-Yeol as the guidelines in his life, and expressed his own desire to manifest the spirit of Joseon Dynasty again even though shrinking situation. In terms of composition method, he put emphasis on realistic description of scenery of the season without pretense, and spiritual meaning of it.

**【Key words】** An Suk-Kyong, Kim Chang-Heup, Lee Byoung Yeon, an uncommon and profound style(超詣), Song Si-Yeol, Verisimilitude(逼真), the Plan for a Northern Expedition(北伐論)

투고일 : 11월 9일, 심사일 : 11월 23일, 게재확정일 : 12월 12일

\* Lecturer of Kangwon National Univ. / neoktkim@naver.com